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음 7월 16일) 제235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 동산동에서 '여의동'으로 지난 14일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현판·기념비 제막식이 실시된 가운데 김수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주민과 관계자들이 기념비 제막식을 갖고 박수를 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전북도, 광복절 74주년 경축행사

도민들의 독립의식 고취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광복절 노래 제창 등 진행
광복회원들, 일본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낭독

전북도는 15일 오전 10시 도청 공 연장에서 기관단체장 등 도민 1200 여명이 참석하는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 어린이 오케 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 유공자 포상 전수,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도민과 함께 경축 분위기를 조성했다.

부대행사로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항일 시인 고(故)윤동주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동주'를 상영해 도민들의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역사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광복회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의 사죄와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제창 등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의 무모한 도발은 성공할 수 없다"며 "도민과 함께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항일의 역사를 극일(克日)로 계승해가는 데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정계개편 '진앙지'

내년 총선 정당별 판세 분석

대안정치연대 평화당 집단 탈당으로 도내에서도 '후폭풍' 민주, 문 대통령·당 지지율 상승 중에도 보수통합 '경계' 평화, 전략 개편 고심... 정동영 "진보정당들과 연대 추진"

아권발 정계 개편 신평탄이 쏟아 울 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면서 뒷날 격 인 전북에서도 정계개편 후폭풍이 불 아칠 전망이다.

전남북 등 호남 기반 민평당 소속 의원 10명은 제3차대 신당을 창당해 거대 양당 구도에 도전하겠다는 12일 집단 탈당했다.

대안정치연대로 불리는 이들 탈당의 원은 유성엽,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 9명이다.

그리고 신당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 속으로 남기로 한 김경진 의원을 포함 하면 모두 10명이다.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평화당에 서 활동해 온 장정숙 의원이 신당 창 당에 동참한다.

대안정치연대는 국회에 비교섭단체 로 등록하고, 중도층 흡수 인재 영입 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분당으로 전북 정치권은 또 한 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됐다.

총선 승리를 향한 각 정당의 정치적 선택이 지역 정기를 흡수하고 있기 때

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지 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에서 야권이 사분오열되는 것에 '여유로 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보수통합에 대해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계개편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평화당 탈당 의원들의 집권여 당인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배제할 수 없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제 3차대 신당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 가 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민주당 입 당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다.

민주당 입장에서선 향후 총선이 '보수대

통합'으로 흐름 경우 위기를 맞을 수 있 다는 우려 속에 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6일 경북 구미 산업단지를 방문해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한국당이) 진 것은 분열했기 때문"이라며 보수 대단결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 터뷰에서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안 하면 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취지 의 발언도 보수대통합을 기저에 둔 것 으로 해석된다.

대안정치연대와 바른미래 내홍과 분 열, 이후 합중연원이 총선 정국을 '오 리무중'으로 만들고 있다.

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미래

당 내 호남계와 함께 신당을 만드는 방 안도 배제할 수 없는 메뉴 중 하나다.

그렇다면 나머지 바른미래당 내 비당 권과 의원들은 한국당과 손을 잡는 시나 리오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

보수대연합의 발단이 마련되는 단계 다.

민주당과 당대당 선거를 치루고자 했던 평화당은 총선 전략을 전면 개편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대연합 시나리오에 맞설 범개혁 진보의 중심체로 우뚝 서고 싶은 마음 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전북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 진 앙지로 떠올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14 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아있는 5 명(당적기준 현역의원 4명)이 한데 뭉 쳐 아권 정계개편의 중심축이 되는 계 목표"라며 "진보정당들과 연대를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도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 인사 단행

9월 1일자... 교장·원장 등 총 283명 임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14일 유초중등학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283명 에 대한 인사를 9월1일자로 단행했 다.

이번 인사에서는 승진, 전직, 전보, 중임, 퇴직 등 교장, 원장, 교감, 원 감 204명, 교육전문직원 79명 등 총 283명이 임용됐다.

관심을 모았던 교육장 인사는 군 산교육장에 박일관 나포중학교 교장, 정읍교육장에 김수영 정읍 동신초 교 장, 김제교육장에 정대주 전주공고 교 장을 각각 임용했다. 장성열 정읍교육 장은 무주교육장으로 전보됐다.

인사 세부사항으로는 교장승진 24 명, 교감승진 30명, 원장승진 2명, 원감승진 1명, 교장·원장 전직 및 중임 33명, 교장전보 34명, 원장전보 1명, 공모교장 12명, 임기만료 공모 교장의 교장 임용 8명, 교감전보 12 명 등이며, 정년퇴직 교장 30명, 교

감 4명, 장학관·교육연구관 2명, 교 장?교감의 명예퇴직은 3명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전라북도학 생해양수련원장에 임용된 김영균 전 라중학교 교장을 포함하여 장학관· 교육연구관 전직 및 전보 10명, 장 학관 승진 4명,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 및 전보 62명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중심의 인사를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통한 학교 교육 령 제고, 보직 및 임직 배치의 적합 성 검증 등에 무게를 뒀다"면서 "특 히 현장에서 행정능력을 발휘한 교 장, 원감, 교감, 교육전문직을 중용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도교육청 2층 대강당 에서 가곡과 함께하는 임명장 수여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